

컴퓨터통신 연재물 책으로도 나온다

새로운 매체실험 종이책으로 발간...복거일씨 등 기성작가도 참여

지금까지 기성작가들이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장은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나 문예잡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가정에 컴퓨터가 대량보급되면서 컴퓨터통신(이하 PC통신)을 이용한 글쓰기가 보편·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PC통신에 게재된 글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컴퓨터라는 매체가 이제 공학도들이나 이 분야의 유능한 사용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컴퓨터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기존문단에서 활동하는 기성작가들의 작품발표의 장으로 PC통신이 이용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기성작가 중에서도 PC통신을 이용해서 글을 발표한 사람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PC통신에 연재물을 게재하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물밑 매체'를 표면으로 끌어올린 대표적 작가는 복거일씨. 그의 작품 「파란 달 아래」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PC통신 주식회사의 전산통신망 하이텔을 통해 연재 발표한 것으로, 문학과지성사에 의해 출간된 단행본은 기실 그의 PC통신 연재물을 '갈무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밑매체에서 표면으로 급부상

그러나 복거일씨나 그 뒤를 이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미래를 위하여」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주인석씨보다 더 앞서서 PC통신을 이용, 글을 발표하면서 독자들의 인기를 차지한 작가들은 생각보다 많다. 이들은 처음에 아마추어라는 순수함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당당히 일군의 작가계열을 형성하면서 창작품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다.

현재 PC통신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가는 김현국씨라고 한다. PC통신 동호인들에게 있어 그의 유명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기존의 기성작가보다 우위에 놓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정도다. 그는 유머를 가미한 짧은 글들을 PC통신에 실고 있는데 컴퓨터세대에 맞는 그의 재치와 진솔한 웃음으로 하루저녁에 그의 작품 조회건수가 2천건 이상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2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그의 작품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쓴 유머단편들은 「컴퓨터 그 사랑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에스컴에서 출판돼 시중의 일반독자들에게까지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성작가들이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장은 각종 언론매체나

문예지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대량보급되면서

기성작가들이 가세, 이를 활용해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컴퓨터통신에

게재된 글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통신 연재방식은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떠오를 만하다.

PC통신을 이용한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앞서고 있는 장르는 SF이다. 앞서 말한 복거일씨의 작품도 SF류이고 한 장르에서 가장 많은 책이 나온 것도 SF류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종수의 단행본을 내놓은 이는 SF계의 기린아로 떠오른 이성수씨. 그는 벌써 「아틀란티스 광시곡」(햇빛) 「바이러스 입진 왜란」 「우먼Q」(이상 스포츠서울) 등 세권의 SF를 내놓은 상태이다. 세 작품 모두 책이 출판되기 전 PC통신을 통해 독자를 만났던 작품들. 이성수씨가 쓴 「아틀란티스 광시곡」은 89년 12월 한달간 연재되었는데 그전까지의 PC통신에 실린 글들이 대화나 소품형식의 수필이었던 것에 반해 이 작품은 최초의 PC통신 본격 장편 SF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우먼Q」는 90년 8월부터 10월까지 연재된 작품으로, 책으로 출판되어서도 1만부 가량 판매되는 인기를 누린 작품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입진왜란」은 91년 5월부터 10월까지 PC통신에 연재되면서 동호인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탄탄한 인기를 부렸던 것. 또 이성수씨와 마찬가지로 「네메시스의 서」(명지사)를 PC통신에도 발표하고 책으로도 출판한 임준홍씨도 컴퓨터SF 작가로 유명하다.

시집으로는 「나는 컴퓨터시인이로소이다」(이상문 엮음, 서울창작)가 있는데 이 시집은 하이텔이나 사설BBS에 오른 시 72편을 실으면서 컴퓨터라는 논리적이고도 차가운 매체에서의 감성적 언어사용을 시험하고 있다. 또 기성문단의 시인인 김광영씨는 PC통신망에 여러 시편들을 게재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김광영씨는 또 PC통신에 여러 수필들을 게



컴퓨터통신을 통해 연재됐던 글들이 단행본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하고 있는데 그의 글은 혼자 쓴 것이 아니라는데 특징이 있다. 즉 그가 쓰고자 하는 글의 제목을 PC통신에 올려놓으면 여러 독자들이 그 제목에 대해 조언이나 글을 보내주고 김광영씨는 이를 취합,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일종의 공동창작에서의 대표집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판된 책들이 「제3의 물결과 우리의 가치관」 「사회특강」(이상 명보) 「보고싶다는 말보다 더 간절한 것은 침묵이다」(박우사) 등이다. 이외에도 PC통신에 게재된 시들과 이와 관련된 컴퓨터에 관한 글을 모아놓은 박순백씨의 「내 삶 나의 컴퓨터」(영진)와, 92년 7월부터 9월말까지 PC통신에 게재한 김대식씨의 「소금값을 청구함」(청동시대) 등 PC통신을 이용한 '독자 먼저 만나보기'를 시도한 책이 적지 않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호인 10만여명 즉각적인 작품평

그러나 독자들이 PC통신에 실린 글을 읽는 것과 단행본으로 묶여져 나온 책을 읽는 느낌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컴퓨터라는 기계의 성격이 무엇보다도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소설의 경우 1일 연재분이 일간지 연재 소설의 분량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더 많은 분량의 글을 연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건의 진행이 느리다"는 PC통신 독자들의 평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글을 책으로 읽은 독자들은 "결코 사건의 전개가 느리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한다.

PC통신을 이용할 경우 창작이나 출판의 단

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박순백씨는 "PC통신이라는 미디어는 속보성과 신속성이라는 방송의 성격과 기록성이라는 출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한마디로 집약하면서 "독자수와 독자들의 반응을 단 몇 분만에 알 수 있고, 컴퓨터디스크에 입력된 글들을 출판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충실한 독자로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은 대개 PC통신 문학동아리 회원들. 현재 PC통신의 문학동아리는 하이텔에 '글나라' '이야기 나라' '시사랑' PC서브에 '멋진 신세계' '추리동' '푸른 산책길' 또 사설 BBS로 '서울창작 NET'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중에 있다. 이들 동아리에 속한 회원은 대략 10만명 가량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보급에 따라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복거일씨가 「파란 달 아래」의 연재를 마치면서 기술한 다음과 같은 말은 본격적인 새로운 매체로서의 PC통신창작이 현재의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매체에 소설을 연재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모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전산통신망이란 새로운 매체가 소설의 시장으로서 지닌 가능성에 대해 탐험했습니다. 아직 그것의 특성과 가능성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일단 긍정적 보고서를 바깥 사람들에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수 기자